



2026. 9. 30 (수)

금융 Analyst 조아해 like.cho@meritz.co.kr
RA 공건희 kunhee.kong@meritz.co.kr

News

기업 돈 빠지자... 은행 '개인자금' 쟁탈전

머니투데이

<https://zrr.kr/OWJihF>

국내 7~8월에는 법인세 납부 시기에 맞춰 기업들이 세금을 내기 위해 은행별로 기업의 저원가성예금(MMDA 등)이 수조 원씩 이탈
최근 은행권 수신잔액의 증가액 상당 부분은 기업 자금으로, 상대적으로 만기까지 보유하는 비율이 높은 개인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예금금리를 올리고 있는 실정

포용금융 확대하는 인뱅...청년전세대출 공급, 5대은행 앞질렀다

이데일리

<https://zrr.kr/BSiVoQ>

청년층의 전세자금 마련을 돕는 정책보증 상품(무주택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공급이 3년째 인터넷전문은행 중심으로 쏠리는 현상
해당 상품이 소득·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만큼, 포용적 금융을 강조하는 시중은행도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

은행들 "금리 오르기전에 빨리 채권 찍자"

한국경제

<https://zrr.kr/NZRrXT>

국내 6개 시중은행이 올해 하반기 들어 발행한 채권 규모가 25조원에 육박하며 전년 동기보다 발행액이 두 배가량 급증
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금리가 거둬 비용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자금 조달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

카뱅, 카카오페이증권 이제야 손 잡았다... '토스와 격차 좁히자'

비즈워치

<https://zrr.kr/2nUL2O>

카카오뱅크가 최근 앱 안에 카카오페이증권 계좌를 연동해 은행 앱에서 국내의 주식을 매매할 수 있도록 결함
토스증권과 카카오페이증권의 격차가 벌어지고 은행 이용자의 투자 수요가 높아지면서 두 회사의 결함을 재촉한 것으로 풀이

또 미뤄진 '코스닥 세그먼트' 구제안... "도입시 추가 모멘텀 전망"

연합뉴스

<https://zrr.kr/oPzadh>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그먼트 제도, 이른바 승강제 제도 시행을 위한 구제안 발표가 재차 연기
시장의 여러 이해 관계자가 관련된 만큼 보다 더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영향으로 풀이

한국금융, KDB생명 '50%+1주' 인수 가닥

머니투데이

<https://zrr.kr/Es7UMQ>

한국투자금융지주가 KDB생명 지분 '50%+1주'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인수에 속도를 낼 전망
KDB생명의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추가 자본확충이 필요해 재무적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금융 입장에서는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만큼의 지분만 취득

"살아있을 때 누리자" 종신보험 판도 변화

문화일보

<https://zrr.kr/0fWjSp>

가장의 조기 사망에 대비하던 전통 종신보험의 시대가 저물고, 높은 환급률 바탕으로 노후 생활비 마련 또는 중대 질병 시 치료비를 미리 당겨쓰는 '생존 혜택' 중심 상품이 대세
소비자들이 종신보험을 5~7년짜리 단기 적금처럼 굴린 뒤, 100% 이상의 환급금을 받아 은퇴 자금으로 활용하는 '장수 리스크 방어용'으로 소비한 결과

보험사, 부자 고객 '보험 밖'까지 본다...WM 영역 확장

아시아경제

<https://zrr.kr/cgedds>

보험사들이 고객자산가 대상 자산관리(WM) 영역을 보험상품 판매에서 상속·세무·건강관리 등으로 확대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투자뿐 아니라 자산 이전과 유동성 관리 등 고객의 요구가 복잡해지는 가운데 보험과 신탁을 결합해 생애 전반을 관리하려는 움직임이 확산

씨티은행 美 가맹점서 스테이블코인 결제 가능해진다

뉴시스

<https://zrr.kr/AyAG3F>

미국에서 씨티그룹의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맹점들이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받을 수 있게 코인베이스가 기업용 스테이블코인 결제 서비스를 출시
소비자가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면 코인베이스가 이를 달러 등 법정화폐로 바꾸고 씨티가 가맹점에 정산하는 방식

카카오, '매일 쓰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추진

연합뉴스

<https://zrr.kr/4SfjDI>

카카오그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일상 금융 인프라로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 구상을 공개하고,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업들과 생태계를 공동 설계하는 협력체 구성을 제안
카카오그룹은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발행-유통 인프라-사용자 채널-유즈케이스'의 4단계로 나눠 준비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책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